

2-3세 아동의 질문 발달*

Received: July 20, 2022
Revised: January 15, 2023
Accepted: February 21, 2023

성민경¹, 오성환², 송현주³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생¹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생²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³

교신저자: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hsong@yonsei.ac.kr

Development of Questioning Behaviors in
Two to Three-year-old Korean Children

Min Kyeong Sung¹, Seong Hwan Oh², Hyun-joo Song³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tudent²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Professor³

* 본 연구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20S1A5A2A01042840).

* 본 논문은 성민경(2022)의
석사 논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pyright 2023,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질문 유형 및 내용에 대한 최초의 탐색적 연구로서, CHILDES(The Child Language Data Exchange System; MacWhinney, 2000)에 포함된 세 명의 한국 아동의 2.5세에서 3.5세간의 발화에서 질문 산출의 양상, 같이 대화에 참여한 성인의 답변 양상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질문은 정보 탐색 질문과 비 정보 탐색 질문으로 구분되었으며, 성인의 답변은 설명적인 답변과 비 설명적인 답변으로 구분되었다. 분석 결과 아동들은 성인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주로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질문하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의 원인이나 원리 등에 대해 묻는 질문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아동의 질문에 반응하여 양육자는 설명적인 답변을 설명적이지 않은 답변보다 더 많이 제공하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답변은 감소하는 반면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답변은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서구 아동의 자료와 매우 유사하며, 한국의 아동들도 주로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질문을 사용하고, 성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질문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인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호기심, 질문, 설명 요구 질문, 설명적인 대답, 말뭉치

질문은 새로운 사물 혹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호기심의 욕구(Ahmadlou et al., 2021)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행위이다. 아동은 언어를 산출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한다. 언어를 산출하기 이전인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영아는 정보 요구 의도의 제스처를 행한다(Crais et al., 2004). 언어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질문을 발화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분당 1회에서 3회 정도의 질문을 산출한다(Chouinard et al., 2007).

아동이 산출하는 질문은 아동의 질문 목적에 따라 정보 탐색 질문(information-seeking question)과 비 정보 탐색 질문(non-information-seeking ques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 탐색 질문에는 단순한 사실 제공 답변이 요구되는 사실 기반 질문(fact-based question)과 비교적 복잡한 인과적 관계 등에 대해 묻는 설명 요구 질문(explanatory question)이 포함된다. 비 정보 탐색 질문은 허락을 구하거나 행동을 요청하는 질문 등이 포함된다(Chouinard et al., 2007; Kurkul & Corriveau, 2018). 사실 기반 질문은 일반적으로 ‘무엇,’ ‘어디,’ ‘언제’ 등의 의문사를 이용해 표현이 가능하며, 설명 요구 질문은 ‘어떻게’ 또는 ‘왜’ 등의 의문사를 활용해 표현할 수 있다. 아동의 의문사 발달은 언어 구조에 관계없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무엇’과 ‘어디’ 이후에 ‘어떻게’와 ‘왜’ 그리고 ‘언제’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ancy, 1989a, 1989b).

아동은 주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유아가 산출하는 질문의 70퍼센트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질문이었으며(Chouinard et al., 2007), 의문사가 포함된 한국 아동들의 질문 기능을 분석했을 때에도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능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Clancy, 1989b).

아동이 산출하는 정보 탐색 질문 중 설명 요구 질문은 비교적 깊은 인지적 이해를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질문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의 주요 탐구 대상이 되어 왔다. 설명 요구 질문은 단순한 사실 기반 질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이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아의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의 질문 중 약 20~30%를 차지한다(Chouinard et al., 2007; Hickling & Wellman, 2001). 단순한 사실 기반 질문이 어린 영아의 가리키기 행동 등의 몸짓을 통해서도 산출될 수 있는 반면, 설명 요구 질문은 약 2세 반의 연령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ickling & Wellman, 2001; Hood & Bloom, 1979). 유아는 ‘어떻게’보다는 ‘왜’의 의문사를 더 많이 사용하며, 단순한 단어보다는 의문사가 포함되는 문장으로 설명 요구 질문을 더 많이 산출한다(Callanan & Oakes, 1992).

특히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발달하는 만 2세에서 3세 사이의 연령에는 인과적 관계의 이해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인지발달이 선행됨에 따라 설명 요구 질문의 양상에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만 2세 이전의 어린 연령에서부터 아동은 인과적인 이해를 보이지만 2.5세에서 3세 사이에 인과적 관계에 대한 발화의 산출량은 유의하게 증가한다(Hickling & Wellman, 2001). 이러한 현상은 아동이 산출하는 질문에서도 그 특성을 보이는데, 만 2-3세 사이에 등장하는 아하 시기(‘a-ha’ period)는 원인과 결과 간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이 이전 시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다(Chouinard et al.,

2007).

아동의 질문이 학습이나 인지발달의 주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아동이 정보획득을 위한 질문을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답변이나 정보를 받아내는지, 상대방으로부터 불충분한 답변이 제공되었을 때는 아동이 추가 질문 등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보이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Chouinard의 연구(2007)에서는 아동이 정보 탐색 질문을 산출하였을 때 성인 양육자로부터 설명적인 답변을 비 설명적인 답변보다 더 많이 획득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리고 아동은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해서 획득한 정보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후속 반응을 보인다. 다른 종류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아동은 설명 요구 질문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답변에 따라 자신의 설명 요구 질문 산출 행동을 조정한다. 유아는 설명 요구 질문에 대해 설명적인 답변을 들었을 때 더 많이 동의하고, 후속 질문을 산출하였으며, 설명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을 때 원래 질문을 더 많이 반복하고 자신만의 답변을 생성했다(Frazier et al., 2009).

설명 요구 질문의 빈도와 양상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를 아동이 자신에게 주어진 답변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는 하나의 증거로 해석한다(Gauvain & Munroe, 2020). 환경적 요인은 아동이 직접적으로 접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환경부터 국가와 문화적 요인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고려될 수 있다(Gauvain et al., 2013; Gauvain & Munroe, 2020; Kurkul & Corriveau, 2018).

Gauvain 등(2013)의 연구에서 비서구 문화권의 아동들은 정보 탐색 질문을 서구 문화권의 아이들

과 유사한 비율로 산출하였지만, 서구 문화권의 아동들보다 설명 요구 질문은 덜 산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양상이 성인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질문을 산출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문화적 양육 특성에 의해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화 간 연구 결과의 차이는 자료의 특성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서구의 자료는 주로 어머니인 성인 양육자와의 가정 내 대화 맥락에서 수집된 데에 반해, 선행연구의 비서구 4분의 3 이상의 자료가 또래를 대화의 대상인 맥락에서 수집되었다. 이는 기존의 서구와 비서구 아동 간 연구 결과 차이가 문화적 맥락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상호작용 상대가 성인 또는 또래인지 여부에 따라 발화 아동의 발화가 달라지는데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서구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어떻게로 시작하는 설명 요구 질문에 또래가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설명 요구 질문을 덜 산출할 수 있다. 실제로 어린 유아는 상대방이 또래 아동인지 여부에 따라 자신의 표현 방식과 내용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Hoff, 2013; Owens, 2013). 따라서 또래가 아닌 주 양육자를 비롯한 성인 양육자와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비서구권 아동의 질문 양상이 서양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 질문의 발달 양상 혹은 양육자와의 질문 상호작용을 주제로 한 연구는 서구의 교육 수준이 높은 백인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Bova & Acidiacono, 2013; Chouinard et al., 2007; Greif et al., 2006; Kachel et al., 2021; Mills et al., 2019). 한국 아동의 질문 발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한국 아동의 의문사가 포함된 발화의 통사적 특징에 대한

연구(Clancy, 1989a, 1989b) 외 화용론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방식을 차용하여 성인 양육자와 아동이 상호작용할 때에 나타나는 질문 상호작용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의 질문을 크게 정보 탐색 질문과 비 정보 탐색 질문으로 구분하였다(Chouinard et al., 2007; Gauvain et al., 2013). 더하여 선행연구에서 설명을 제공하는 답변과 그렇지 않은 답변으로 구분한 것에 근거하여(Kurkul & Corriveau, 2018), 아동의 질문에 대한 양육자의 답변을 분석하고 그 관계를 탐색적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유아의 정보탐색 질문과 그중에서도 설명 요구 질문의 발달 양상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만 2.5-3세 아동이 양육자와 상호

작용할 때 질문 발달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 양육자가 만 2.5-3세 아동의 질문에 대해 보이는 답변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Child Language Data Exchange System(CHILDES; MacWhinney, 2000)에 등록된 한국 아동의 말뭉치 자료를 사용하였다. CHILDES는 아동과 성인 간 대화의 전사본 및 동영상 자료가 탑재되어 있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로서, 현존하는 아동의 말뭉치 자료 중 규모가 가장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자료는 1명의 여아와 2명의 남아를 3년간 추적하여 아동의 상호작용 상

표 1. 연구대상별 정보

아동	상호작용의 상대방	전체 월령 범위 (분석 월령 범위)	전체 자료 수집 기간 (분석 자료 수집 기간)	전체 전사본 개수/ 분량 (분석 전사본 개수/ 분량)	총 질문 수/ 분당 질문 수	주요 관찰 상황
Jong	조모, 조부, 모	15~41개월 (30~41개월)	2009.03.28 ~ 2011.05.28 (2010.06.16 ~ 2011.05.28)	전사본 62개/ 1,891분 (16개/ 833분)	총 1,081회/ 분당 1.26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자와 아동의 다양한 상호작용. 주로 놀이 또는 독서를 하는 상황.
Joo	조모, 모, 부, 자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없음)	21~46개월 (30~41개월)	2009.02.15 ~ 2012.03.04 (2009.11.03 ~ 2011.10.31)	전사본 77개/ 1,742분 (37개/ 847분)	총 725회/ 분당 0.86회	양육자와 아동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주로 함께 동화책을 읽는 상황.
Yun	모	27~45개월 (30~41개월)	2009.02.16 ~ 2010.08.20 (2009.05.11 ~ 2010.04.28)	전사본 38개/ 1,284분 (22개/ 731분)	총 508회/ 분당 0.67회	양육자와 아동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주로 함께 동화책을 읽는 상황.

황을 기록하고 전사하였다. 3명의 아동은 각각 Jong, Joo, Yun으로 명명되었으며 모두 독립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은 2009년 2월 15일부터 2011년 3월 4일까지 최장 3년간 수집되었으며, 수집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연령은 1세 3개월이 가장 어린 연령이었으며 3세 10개월이 가장 높은 연령이었다. 전사 자료는 총 177개로 그중 1세는 47개, 2세는 80개, 3세는 50개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별 정보를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신의 내적, 인지적 상태를 다 단어로 조합하여 질문으로 표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연령(Owens, 2015)과 3명의 피험자가 모두 표집에 포함되지 않은 연령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만 2세 6개월부터 만 3세 5개월까지의 자료만 분석되었다. 만 2세 6개월부터 3세 5개월까지의 자료는 2,411분간 기록된 총 75개의 자료였으며, 만 2세 6개월부터 2세 11개월까지의 자료를 만 2.5세, 만 3세 0개월부터 3세 5개월까지의 자료를 만 3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사 자료를 확인했을 때 아동들은 대부분 책 읽기 활동 혹은 일상생활 상황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부 자매가 상호작용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아동은 성인과 상호작용하였으며, 자매가 아동의 질문에 응답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고, 아동이 자매의 발화 이후 “응.”이라고 단순 반응한 단일 사례만이 아동의 전체 발화 수에 포함되었다. 상호작용의 상대가 되는 성인은 어머니가 가장 많았고, 아버지, 조부모가 포함되어,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와 상호작용한 내용을 모두 분석하였다.

자료코딩

질문은 발화 전사 자료에서 문장의 끝에 물음표

가 표기되어있는 문장들로 구분되었다. 질문 상호작용은 아동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으며, 양육자가 아동의 질문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아동의 질문 범주와 양육자의 반응 범주에 대한 코딩은 Chouinard 등(2007)의 연구와 Kurkul와 Corriveau(2018)의 연구 방법을 차용하였다.

아동의 질문

아동의 질문은 크게 정보 탐색 질문과 비 정보 탐색 질문으로 구분된다. 표 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정보 탐색 질문에는 단순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실 기반 질문과 인과 등의 설명을 요구하여 더 깊은 인지적 처리를 유도하는(Chouinard et al., 2007) 설명 요구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 정보 탐색 질문에는 허락 요청 질문(permission seeking question), 행동 요청 질문(action seeking question), 이전의 발화를 단순 확인하는 명료화 질문(clarification question), 등이 있다. 각 질문은 배타적으로 한 개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아동 발화의 마지막에 물음표가 표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자신만의 응답을 산출하는 경우(예: 양육자가 “뭐가 됐어?”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동이 “응.” 이후 “꿈틀꿈틀”이라고 바로 이어서 스스로 응답하는 경우)나 단순히 양육자를 부르는 발화(예: 엄마?)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양육자의 응답

표 3에 기술된 바와 같이 양육자의 답변에는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답변(Response on topic, No explanation Needed),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Response on Topic with Explanation), 적절한 설명이 없이

표 2. 아동의 질문 코딩

질문의 종류	정의	예시
정보 탐색 질문 (Information seeking question)		
사실 기반 (Fact-based)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 주로 예, 아니오 질문이나, “무엇”, “언제”, “어디서”가 포함된 질문	“이건 빠가 아니야?” “토끼 어디 있는데?”
설명 요구 (Explanatory)	좀 더 긴 설명을 대담으로 요구하는 질문. 주로 “왜”, “어떻게,”가 포함된 질문. 다른 유형의 질문도 긴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 포함됨.	“왜 산타할아버지 또 와?” “착한 어린이도 안 주면?”
비 정보 탐색 질문 (Non-information-seeking question)		
허락 요청 (Permission seeking)	아동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질문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
행동 요청 (Action seeking)	아동이 부모나 다른 성인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하기 위한 질문	“엄마 공 좀 주실래요?”
명료화 (Clarification)	확인을 위한 질문	“응?” “뭐라고?”
기타 (Others)	위의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질문	“또?”

표 3. 양육자의 응답 코딩

답변의 종류	정의	예시
설명적인 답변 (Explanatory Answer)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 답변 (Response on topic, no explanation Needed)	특별한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 단순한 응답을 제공했을 때	(아동이 “어디에 붙여?” 질문한 경우) “여기에 하나.”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 (Response on topic with explanation)	양육자가 주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반응을 제공했을 때	(아동이 “착한 어린이도 안 주면?” 질문한 경우) “그러면 산타클로스가 실수한 거지.”
	주제에 적절하게 응답했다라도 순환 논리로 설명했을 때 (*분석 시에는 비 설명적인 답변으로 계산)	(아동이 “그게 왜 싫어?” 질문한 경우) “그게 싫어서.”

표 3. 양육자의 응답 코딩

(계속)

답변의 종류	정의	예시
비 설명적인 답변 (Non-explanatory Answer)		
적절한 설명이 없이 주제에만 응답한 답변 (Response on Topic, No explanation)	주제에 대한 반응을 보이긴 했으나, 설명을 포함하지 않을 때	(아동이 “왜 잘라도 피 안 나?” 질문한 경우) “응. 피가 안 나.”
관련 없는 답변 (Unrelated)	양육자가 주제와 상관없는 응답을 보였을 때	(아동이 “왜 이렇게 돼?” 질문한 경우) “아니, 이것도 하고.”
모름 (Do not Know)	모른다고 응답했을 때	“글썸다” “몰라”
명료화 (Clarification)	아동의 질문 내용을 확인할 때	“응?” “뭐라고?”
아동의 질문을 되돌려주는 답변 (Turn the Question Back)	양육자가 아이에게 되묻는 질문을 해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이끌어 내도록 할 때	(아동이 “몇 시야?” 질문한 경우) “몇 시인 것 같아?”
기타 (Others)	위의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답변	

주제에만 응답한 답변(Response on Topic, No explanation), 관련 없는 답변(Unrelated), 모른다고 말하는 답변(Do not Know), 아동의 질문을 되돌려주는 답변(Turn the Question Back), 명료화 답변(Clarification)이 포함되었고, 특정한 범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Others) 범주에 포함시켰다. 주제와 관련 있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답변은 사실 기반 질문에서만 도출이 가능한 단순 사실 답변이었으며,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아동에게 적절하게 제공한 응답으로 구분되었다. 반면 그 외의 답변은 아동이 요청한 질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단,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일지라도 순환논리로 설명한 경우 추가적으로 ‘순환(circular)’을 기술하고,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답변으로 구분되었다.

코딩 신뢰도

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자료 코딩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2,411분의 전사 자료 중 약 26%인 628분 자료를 무작위 선정하여 평정자 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평정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자료 코딩 방식에 대한 훈련을 받은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2명 및 학부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평정자는 독립적으로 코딩을 진행하였다. 평정자 간 자료 코딩 일치 비율은 전체에서 90.19%였으며, 아동의 질문 부분의 일치 비율이 96.51%, 양육자의 답변 부분의 일치 비율이 87.40%였다.

결 과

아동 질문의 유형

전체 자료에서 아동은 2,411분의 시간 동안 총 14,021회 발화하였고, 이 중 2,314회 질문을 산출하였다. 이는 전체 발화의 16.50%가 질문이었으며, 분당 0.96회의 질문을 산출했음을 의미한다. 표 1은 참가자별 질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아동은 Jong으로 총 1,081회의 질문을 산출하였으며, 가장 적은 질문을 한 아동은 Yun으로 총 508회의 질문을 산출하였다. 시간 대비 질문 양 또한 Jong이 분당 1.26회로 단위 시간당 가장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Yun이 분당 0.67회로 단위 시간당 가장 적은 질문을 하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질문의 유형별 비율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아동의 질문에서 연령과 정보탐색 질문 혹은 비 정보 탐색 질문이라는 질문의 종류 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은 정보 탐색 질문($M = 55.03$, $SD = 40.20$)을 비 정보 탐색 질문($M = 9.25$, $SD =$

20.2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산출하였다, $\chi^2(1, N = 2314) = 244.76$, $p < .001$.

그림 1은 참가 아동별 정보 탐색 질문의 비율이 발달적으로 변화한 양상을 보여준다. 참가한 3명의 아동 모두 정보 탐색 질문의 비율이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발달적 변화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통해, 2.5세와 3세 간 전체 질문 대비 정보 탐색 질문의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아동은 만 2.5세일 때($M = 77.85$, $SD = 11.78$)보다 만 3세가 되었을 때($M = 94.10$, $SD = 4.68$), 전체 질문에서 정보 탐색 질문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산출하였다, $Z = -3.55$, $p < .001$.

연령 변수와 사실 기반 질문과 설명 요구 질문이라는 질문의 종류 변수 간 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은 사실 기반 질문($M = 43.58$, $SD = 34.03$)을 설명 요구 질문($M = 11.44$, $SD = 14.37$)에 비해 더 많이 산출

표 4. 아동의 연령에 따른 질문 종류별 비율

질문의 종류	2.5세	3.0세	전체
정보 탐색 질문 (Information seeking question)			
사실 기반 (Fact-based)	62.39%	71.85%	67.12%
설명 요구 (Explanatory)	10.01%	23.62%	16.82%
비 정보 탐색 질문 (Non-information-seeking question)			
허락 요청 (Permission seeking)	0.30%	0.15%	0.23%
행동 요청 (Action seeking)	0.91%	0.60%	0.76%
명료화 (Clarification)	25.99%	3.77%	14.88%
기타 (Others)	0.40%	0.00%	0.20%
총합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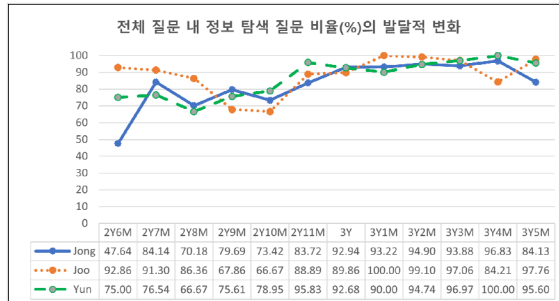


그림 1. 아동별 정보 탐색 질문의 비율 발달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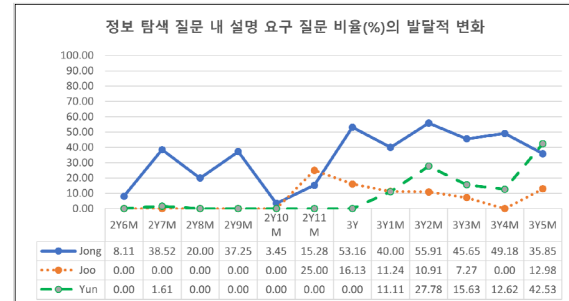


그림 2. 아동별 설명 요구 질문의 비율 발달적 변화

하였다, $\chi^2(1, N = 1981) = 33.08, p < .001$. 그림 2에서 아동별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정보 탐색 질문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설명 요구 질문의 비율 또한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통해 2.5세와 3세에서 나타나는 사실 기반 질문 비율의 발달적 변화와 설명 요구 질문 비율의 발달적 변화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결과,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질문 대비 사실 기반 질문의 비율은 낮아지지만($Z = -3.15, p = .002$), 설명 요구 질문의 비율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Z = -3.15, p = .002$. 구체적으로 Jong은 만 2세 6개월부터 만 3세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하였으며, 최소 8.11%에서 최대 55.91%로 다른 아동에 비해 어린 연령에도 비교적 높은 비율의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하였다. 반면 Joo는 만 2세 11개월에 처음으로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하였고, Yun은 만 2세 7개월에 1.67%라는 극소량의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한 뒤에 이를 산출하지 않다가 만 3세에 설명 요구 질문을 다시 산출하기 시작하여 그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만 3세에는, Jong이 만 2.5세의 자료와 유사하게 최소 35.85%에서 최대 55.91%까지 가장 높은 비율로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하였다.

양육자의 답변

아동의 질문에 대한 양육자의 답변은 설명적인 답변과 비 설명적인 답변으로 구분되었다. 표 5는 정보 탐색 질문을 산출하는 아동의 연령 변화에 따른 양육자의 답변 종류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양육자가 제공하는 답변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 2.5세와 3세가 산출한 정보 탐색 질문의 답변에 대해 일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보 탐색 질문에 대해 양육자가 설명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비율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Z = -.46, p = .65$. 그러나 정보 탐색 질문에 대한 설명적인 답변의 세부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3세 아동이 정보 탐색 질문을 산출하였을 때($M = 49.72, SD = 15.54$)보다 2.5세 아동이 정보 탐색 질문을 산출하였을 때($M = 63.39, SD = 15.69$), 양육자는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 답변을 더 높은 비율로 제공하였다, $Z = -2.77, p = .01$. 반면, 2.5세 아동이 정보 탐색 질문을 산출하였을 때($M = 7.12, SD = 8.58$)보다 3세 아동이 정보 탐색 질문을 산출하였을 때($M = 20.92, SD = 13.67$), 양육자는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하는 답변을 더 높은 비율로 제공하였다, Z

표 5. 정보 탐색 질문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자의 답변 종류별 비율

답변의 종류	2.5세	3.0세	전체
설명적인 답변 (Explanatory Answer)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 답변	56.98%	50.59%	53.79%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	11.87%	19.53%	15.70%
비 설명적인 답변 (Non-explanatory Answer)			
적절한 설명이 없이 주제에만 응답한 답변	13.27%	11.94%	12.60%
관련 없는 답변	2.09%	3.72%	2.91%
모름	0.56%	0.79%	0.67%
명료화	1.12%	0.95%	1.03%
되돌려주는 질문	11.31%	5.06%	8.19%
응답 없음	2.51%	6.96%	4.74%
순환 논리	0.28%	0.47%	0.38%
총합	100%	100%	100%

표 6. 사실 기반 질문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자의 답변 종류별 비율

답변의 종류	2.5세	3.0세	전체
설명적인 답변 (Explanatory Answer)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 답변	65.96%	67.23%	66.60%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	6.16%	5.88%	6.02%
비 설명적인 답변 (Non-explanatory Answer)			
적절한 설명이 없이 주제에만 응답한 답변	11.83%	9.45%	10.64%
관련 없는 답변	1.94%	2.73%	2.34%
모름	0.32%	0.32%	0.32%
명료화	1.13%	1.05%	1.09%
되돌려주는 질문	10.53%	5.57%	8.05%
응답 없음	2.11%	7.77%	4.94%
순환 논리	0.00%	0.00%	0.00%
총합	100%	100%	100%

$= -3.51, p < .001$.

하지만, 아동의 연령에 따른 설명적인 답변 비율의 변화는 아동이 산출하는 정보 탐색 질문 유형의 비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문의 종류별로 아동의 만 2.5세와 3세라는 연령에 따라 양육자가 제공하는 답변의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아동이 2.5세와 3세에 사실 기반 질문을 각각 산출하였을 때, 양육자의 답변의 종류별 비율을 표 6에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양육자의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 답변의 제공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Z = -.24, p = .81$),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의 비율 또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Z = -1.78, p = .08$.

다음으로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하는 아동의 연

령에 따른 양육자의 답변 종류별 비율 변화는 표 7에서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2.5세와 3세에 설명 요구 질문을 각각 산출하였을 때, 양육자는 2.5세 아동($M = 40.06, SD = 28.38$)보다 3세 아동($M = 60.46, SD = 23.03$)에게 더 높은 비율로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을 제공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Z = -1.52, p = .1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만 2.5세와 3세 아동의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아동이 산출하는 질문의 종류 및 내용, 아동의 질문에 대한 양육자 답변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만 2.5세와 3세 아동은 모두 정보 탐색 질문을 비 정보 탐색 질문에 비해 많이 산출

표 7. 설명 요구 질문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자의 답변 종류별 비율

답변의 종류	2.5세	3.0세	전체
설명적인 답변 (Explanatory Answer)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	49.49%	61.02%	55.26%
비 설명적인 답변 (Non-explanatory Answer)			
적절한 설명이 없이 주제에만 응답한 답변	21.21%	19.49%	20.35%
관련 없는 답변	3.03%	6.71%	4.87%
모름	2.02%	2.24%	2.13%
명료화	1.01%	0.64%	0.82%
되돌려주는 질문	16.16%	3.51%	9.84%
응답 없음	5.05%	4.47%	4.76%
순환 논리	2.02%	1.92%	1.97%
총합	100%	100%	100%

하였다. 이는 아동이 질문을 특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출한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정보 탐색 목적의 질문을 더 많이 산출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Chouinard et al., 2007; Frazier et al., 2016; Gauvain et al., 2013; Kurkul & Corriveau, 2018).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 탐색 질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진 유아가 질문을 효과적인 정보 획득의 기술로 더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은 시간이 흐르며 발달함에 따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더 쉽게 인식하고 더 잘 찾아낸다(Mills et al., 2010). 또한 특정 행동이 정보 획득에 효과적임을 반복 경험한 아동은 동일한 행동을 빈번하게 산출하는 양상을 보인다(Begus & Southgate, 2012; Goupil et al., 2016).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양육자는 아동의 질문에 대해 설명적인 답변을 비 설명적인 답변에 비해 더 많이 산출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질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질문을 통해 정보를 획득했던 경험은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질문을 사용하는 행위를 강화하게 되고,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이라고 예측되는 질문을 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질문은 전체적인 산출량뿐만 아니라 질문의 종류에서도 연령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만 2.5세의 아동에 비해 만 3세의 아동은 설명 요구 질문의 비율이 높다. 설명 요구 질문은 사실 기반 질문에 비해 깊은 수준의 이해를 도모하는 질문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은 설명 요구 질문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과적 연관성, 내적 작

동 원리 등의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Legare & Lombrozo, 2014; Walker et al., 2017).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과적 이해 등의 고차원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Erb et al., 2013) 이와 관련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설명 요구 질문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이는 서구의 아동들이 산출하는 설명 요구 질문 양상과 유사한 결과(Chouinard et al., 2007)로, 한국 아동들도 높은 연령에서 전반적인 설명 요구 질문의 비율이 약 30% 정도로 유아가 성인과 상호작용할 때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질문을 다수 산출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비서구 문화권의 아동이 설명 요구 질문을 거의 산출하지 않는다는 Gauvain 등(2013)의 연구 결과에 반한다. 당시 연구에서 비서구 문화권의 아동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주로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서구 문화권 아동의 질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는 통제적이고 성인의 권위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아닌 아동이 상대방의 지식수준을 고려해 질문의 내용을 조절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양육자의 답변 종류 또한 아동의 연령에 맞춰 달라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양육자들은 어린 연령의 아동에게는 주제에 적합하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답변을 더 많이 보이지만, 높은 연령의 아동에게는 주제에 적합하고 설명을 포함하는 답변을 더 많이 제공하였다. 이러한 양육자의 답변 양상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어린 연령의 아동은 주제에 적합하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답변으로 충족이 가능한 사실 기반의 질문을 높은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산출하고, 높은 연령의 아동은 주제에 적합하고 설명을 포함하는 답변

이 요청되는 설명 요구 질문을 낮은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산출하기 때문에 양육자의 설명적인 답변의 종류 비율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양육자가 높은 연령의 아동에게 능동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주제에 맞고 설명을 포함하는 답변을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양육자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Kuchirko et al., 2016). 양육자가 아동의 인과 등의 깊은 이해에 대한 인지적 준비도를 예측하거나 아동의 높아진 이해 수준을 인식함으로써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주제에 맞고 설명을 포함하는 답변을 산출함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국 아동의 질문과 양육자의 답변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아동의 질문 의도와 정보 획득 전략으로서 질문의 효과성, 질문에 반영되는 인지적 기제 등을 알아보았다. 제시된 결과를 통해 한국 아동의 전반적인 질문의 양상을 이해하고, 이후 구체적인 사안들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3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으로서 모든 한국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가 한국 아동의 질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화 시도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새로운 전사 자료를 제작하여 말뭉치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통한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자료가 수집된 시점이 2009년경으로 현재로부터 약 15년가량 이전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시점에 아동의 발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아동은 생애 초기부터 다양한 인지적 자극을 경험하며,

경험하는 인지적 자극의 종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 양상에 문화가 끼친 영향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코로나 팬더믹은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Harding et al., 2021; Kartushina et al., 2022). 질문의 발달과 관련하여 팬더믹 상황이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였다는 데에서 언어의 사회적 사용을 의미하는 화용적 접근에서의 발달적 차이를 양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최신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거나 연구해보아야 함을 제언한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 사용된 말뭉치 자료들은 자연관찰의 상황에서 양육자가 직접 음성 녹음본 또는 비디오 녹화본을 수집한 것이었다. 사용된 말뭉치 자료 중 Jong의 전사본에는 영상자료가 제공되었으나, Joo와 Yun 자료의 경우 발화 전사본만이 제공되었다. 자료 수집의 특성상 주 양육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적인 특성이 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 발달 연구에 관심이 많은 양육자의 특성이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양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질문 양상을 연구하고자 주 양육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 양육자들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질문과 양육자의 답변을 모두 분석하였다. 그러나 아동과 양육자 간 상호작용의 양상이 양육자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대상에 따른 질문 양상을 분석해보기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된 대상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가족 특정적 정보가 아동의 질문 양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Kurkul & Corriveau, 2018). 또한 장기간 진행된 자료 수집에 참여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연구 대상 양육자들이 아동 교육에 관심이 높거나, 아동 발달 등과 관련한 학문적 지식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기에 관련한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Ahmadlou, M., Houba, J. H. W., Van Vierbergen, J. F. M., Giannouli, M., Gimenez, G. A., Van Weeghel, C., Darbanfouladi, M., Yasamin Shirazi, M., Dziubek, J., Kacem, M., Winter, F., & Alexander Heimel, J. (2021). A cell type-specific cortico-subcortical brain circuit for investigatory and novelty-seeking behavior. *Science*, 372(6543). <https://doi.org/10.1126/science.abe9681>
- Begus, K., & Southgate, V. (2012). Infant pointing serves an interrogative function. *Developmental Science*, 15(5), 611-617. <https://doi.org/10.1111/j.1467-7687.2012.01160.x>
- Bova, A., & Arcidiacono, F. (2013). Investigating children's Why-questions: A study comparing argumentative and explanatory function. *Discourse Studies*, 15(6), 713-734. <https://doi.org/10.1177/1461445613490013>
- Callanan, A. M., & Oakes, M. L. (1992). Preschoolers' questions and parents' explanations: Causal thinking in everyday activity. *Cognitive Development*, 7(2), 213-233. [https://doi.org/10.1016/0885-2014\(92\)90012-G](https://doi.org/10.1016/0885-2014(92)90012-G)
- Chouinard, M. M., Harris, P. L., Maratsos, M. P., & Collins, W. A. (2007). Children's Questions: A Mechanism for Cognitive Develop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2(1), 1-129. <http://www.jstor.org/stable/30163594>
- Clancy, P. M. (1989a). A Case Study in Language Socialization: Korean Wh-Questions. *Discourse Process*, 12(2), 169-191. <https://doi.org/10.1080/01638538909544725>
- Clancy, P. M. (1989b). Form and function in the acquisition of Korean wh-questions. *Journal of Child Language*, 16(2), 323-347. <https://doi.org/10.1017/S0305000900010448>
- Crais, E., Douglas, D. D., & Campbell, C. C. (2004). The Intersection of

- the Development of Gestures and Intentionali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3), 678-694.
[https://doi.org/10.1044/1092-4388\(2004/052\)](https://doi.org/10.1044/1092-4388(2004/052))
- Erb, C. D., Buchanan, D. W., & Sobel, D. M. (2013). Children's developing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 between variable causal efficacy and mechanistic complexity. *Cognition*, 129(3), 494-500.
<https://doi.org/10.1016/j.cognition.2013.08.002>
- Frazier, B. N., Gelman, S. A., & Wellman, H. M. (2009). Preschoolers' search for explanatory information within adult-child conversation. *Child Development*, 80(6), 1592-1611.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9.01356.x>
- Frazier, B. N., Gelman, S. A., & Wellman, H. M. (2016). Young Children Prefer and Remember Satisfying Explanation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7(5), 718-736.
<https://doi.org/10.1080/15248372.2015.1098649>
- Gauvain, M., Munroe, R. L., & Beebe, H. (2013). Children's Question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A Four-Culture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7), 1148-1165.
<https://doi.org/10.1177/0022022113485430>
- Gauvain, M., & Munroe, R. L. (2020). Children's questions in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 In L. P. Butler, S. Ronfard, & K. H. Corriveau (Eds.), *The questioning child: Insights from psychology and education* (pp. 183-211).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9781108553803.010>
- Goupil, L., Romand-Monnier, M., & Kouider, S. (2016). Infants ask for help when they know they don't know.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3(13), 3492-3496.
<https://doi.org/10.1073/pnas.1515129113>
- Greif, M. L., Nelson, D. G. K., Keil, F. C., & Gutierrez, F. (2006). What Do Children Want to Know About Animals and Artifacts? Domain-Specific Requests for Information. *Psychological Science*, 17(6), 455-459.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6.01727.x>
- Harding, C., Aloysius, A., Bell, N., Edney, S., Gordon, Z., Lewis, H., Sweeting, M., & Murphy, R. (2021). Reflections on COVID-19 and the potential impact on preterm infant feeding and speech, language and communication development. *Journal of Neonatal Nursing*, 27(3), 220-222.
<https://doi.org/10.1016/j.jnn.2020.09.001>
- Hickling, A. K., & Wellman, H. M. (2001).

- The emergence of children's causal explanations and theories: Evidence from everyday convers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5), 668-683.
<https://doi.org/10.1037/0012-1649.37.5.668>
- Hoff, E. (2013). *Language Development*. Cengage Learning.
- Hood, L., Bloom, L., & Brainerd, C. J. (1979). What, When, and How about Why: A Longitudinal Study of Early Expressions of Causalit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4(6), 1-47.
<https://doi.org/10.2307/1165989>
- Kachel, G., Moore, R., Hepach, R., & Tomasello, M. (2021). Toddlers Prefer Adults as Informants: 2- and 3-Year-Olds' Use of and Attention to Pointing Gestures From Peer and Adult Partners. *Child Development*, 92(4), e635-e652.
<https://doi.org/10.1111/cdev.13544>
- Kartushina, N., Mani, N., Aktan-Erciyes, A., Alaslani, K., Aldrich, N. J., Almohammadi, A., Anderson, L. M., Andonova, E., Aussems, S., Babineau, M., Barokova, M., Bergmann, C., Cashon, C., Custode, S., Carvalho, A., Dimitrova, N., Dynak, A., Farah, R., Fennell, C., ... Mayor, J. (2022). COVID-19 first lockdown as a window into language acquisition: Associations between caregiver-child activities and vocabulary gains. *Language Development Research*, 2, 1-36.
<https://hdl.handle.net/21.11116/0000-0008-28F5-7>
- Kuchirko, Y., Tamis-LeMonda, C. S., Luo, R., & Liang, E. (2016). 'What happened next?': Developmental changes in mothers' questions to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Literacy*, 16(4), 498-521.
<https://doi.org/10.1177/1468798415598822>
- Kurkul, K. E., & Corriveau, K. H. (2018). Question, Explanation, Follow-Up: A Mechanism for Learning From Others?. *Child Development*, 89(1), 280-294.
<https://doi.org/10.1111/cdev.12726>
- Legare, C. H., & Lombrozo, T. (2014). Selective effects of explanation on learning during early childhood.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26, 198-212.
<https://doi.org/10.1016/j.jecp.2014.03.001>
- MacWhinney, B. (2000). *The CHILDES Project: Tools for Analyzing Talk*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ills, C. M., Legare, C. H., Bills, M., & Mejias, C. (2010). Preschoolers use questions as a tool to acquire knowledge from different source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1(4), 533-560.
<https://doi.org/10.1080/15248372.2010.516419>
- Mills, C. M., Sands, K. R., Rowles, S. P., &

- Campbell, I. L. (2019). "I want to know more!": Children are sensitive to explanation quality when exploring new information. *Cognitive Science*, 43(1), 1-28. <https://doi.org/10.1111/cogs.12706>
- Owens, E. R. (2013). *Language Development* (Lee & Lee; 8th ed). Seoul: Sigmappress.
- Walker, C. M., Lombrozo, T., Williams, J. J., Rafferty, A. N., & Gopnik, A. (2017). Explaining constrains causal learning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88(1), 229-246. <https://doi.org/10.1111/cdev.12590>

Development of Questioning Behaviors in Two to Three-year-old Korean Children

Min Kyeung Sung¹

Seong Hwan Oh²

Hyun-joo Song³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tudent²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Professor³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types of questions produced by Korean preschoolers. Corpora from three children in The Child Language Data Exchange System(CHILDES - MacWhinney, 2000)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types of questions asked by 2.5- to 3-year-old children and the answers given by adults. Questions were divided into information seeking and non-information seeking questions. Furthermore, answers of adult caregivers were classified into explanatory and non-explanatory answers. The results show that children ask questions to receive information, and the percentage of explanatory questions increases as they grow older. Adult caregivers provide explanatory answers more often than non-explanatory answers. These results are similar to those obtained from children in the West, suggesting that Korean children use questions as a means of obtaining information, and asking questions is an efficient way of gaining information from adults who can be informants.

Keywords : Korean children question, curiosity, question, corpus, explanatory question